



소촌아트팩토리 전경.

시민-예술가 함께 문화예술축제

13~14일 소촌아트팩토리서 바자회·산단영화제

‘사는게 꽃 같네’ 주제...색다른 음악회 등 선사

시민 중심 문화예술축제인 광산시민문화예술 축제와 산단영화제가 오는 13~14일 이틀간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진행된다. 시민예술가들이 함께 꾸린 광산시민문화예술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신동찬)와 광산구가 공동 주관하며 특별공연, 시민예술가 한마당, 바자회, 공공미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사는 게 꽃 같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산시민문화예술축제는 13일 오후 5시부터 뮤지션 하림을 중심으로 구성된 월드뮤직밴드 하림과 블루카멜양상블의 ‘국경없는 음악회’로 문을 연다. 실크로드를 여행하듯 우리 음악부터 세계 곳곳의 민속음악까지 익숙한 선율들을 독특한 앙상블로 재구성해 들려준다.

이와 함께 ‘민트리오’의 무성영화 콘서트 ‘음악 섬의 악기들’이 공연된다. 바순(목관악기), 미니튜바(금관악기), 우크렐레(현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민트리오에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재기발

랄한 음악을 덧입혀 색다른 음악극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행사인 시민예술가 한마당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시민 참여자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다. 오후 7시부터 ‘음악공간 Old & New’, ‘밴디스트의 락앤롤’, ‘창작뮤지컬 흥부와 놀부’, ‘울랄라 훌랄라 때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모닥불파티 ‘동글게 동글게’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부대행사로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 꽃 바자회’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어룡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이 함께 꾸리는 재미장터가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할 예정이다.

14일 오후 2시부터는 산단영화제 ‘추추고 노래하고 연대하라’가 개최된다. 시네마토크, 광주 청년감독 초대전, 어린이 영화존, 축하공연, 주제영화 상영 등이 마련되어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네마토크 ‘파란달의 시네마

레시피’가 진행된다. 방송작가 출신 요리 전문가 정영선 작가가 영화에 등장하는 요리들에 대한 색다른 의미를 재미있게 풀어낸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광주 청년감독 초대전’이 진행된다. 광주 지역 청년감독의 독립영화 ‘신기록’ (감독 허지은, 이경호)과 ‘돌아가는 길’ (감독 허지은) 등 두 편이 상영된다.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영화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영화 나들이를 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기타 듀오 데일리 어쿠스틱의 축하공연 ‘가을밤 낭만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번 산단영화제의 주제영화인 ‘런던 프라이드’가 상영될 예정이다. ‘런던 프라이드’는 광부들과 성소수자의 갈등과 연대를 유쾌하게 그린 논픽션 영화다.

이외에도 19일까지는 소촌아트팩토리 레지던스 ‘Re-mix 소촌’ 2기 입주작가 기획전시인 디스크리믹스 ‘네 멋대로 해라’ 전이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열린다.

문의 062-960-3685. /이연수 기자

광주의 아름다움을 작곡하다

이승규, 2집 음반 발표 · 제3회 작곡발표회

작곡가 이승규씨가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라이브러리파크 내)에서 ‘광주, 시를 노래하다’ 음반 발표 겸 제3회 작곡발표회를 선보인다.

이승규의 2집 음반인 ‘광주, 시를 노래하다’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여간 광주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작곡한 24곡이 수록됐다. 광주의 아름다움, 역사와 전통에 대해 고민하고 새롭게 느낀 흔적들이다.

작곡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작곡한 피아노 모음곡 ‘자음상(自音像)’, 양림동에서 활동한 시인들의 대표작을 모은 가곡 ‘양림, 시인의 마을’, 양림동에서 출생한 작곡가 정추의 생애를 그린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정추, 1923-2013’,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항의 브로맨스를 그린 가곡 ‘월봉, 브로맨스’, 광주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곡 ‘광주의 노래’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에서 태어나 살아온 나에게 광주는 늘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아름다움을 음악을 통해 공유하고 싶었으며, 이 음악들이 정의를 지향하는 광주의 역사, 고귀한 사상, 아름다운 문화 예술의 향기를 다시



새롭게 느끼고 기억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3093-4828. /이연수 기자

가을의 낭만 씨네마 콘서트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서 무료 공연

광주문화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공연장상주단체 (사)문화예술진흥회(이사장 윤택림) 소속 예술단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콘서트가 12일 열린다.

‘가을의 낭만 씨네마 콘서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계절시리즈’ 세 번째 공연이다. 영화의 명장면에 광주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지휘 이창훈)의 연주가 임해지고, 방송인 이용화씨의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광의 탈출, 오페라의 유령, 시네마천국, 미션 임파서블, 접속, 태극기 휘날리

며, 디즈니 매직, 레미제라블 등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명작 10편을 만날 수 있다. 각 영화의 드라마틱한 명장면에 생생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해져 낭만적인 가을밤을 선사한다.

공연은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며 7세 이상 무료관람 가능하다.

한편, (사)문화예술진흥회는 오케스트라, 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봉사단 운영을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보람 기자



박상용 역사여행
 <33>수원화성

정조, 왕권강화 일환으로 신도시 건설

역사 교과서에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대주제 아래 영조 정조시기의 사회발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를 함께 묶어 한 단원을 이루며 설명글과 함께 사용되는 삽화로 수원화성과 성을 쌓았을 때의 도구들이 보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시대순 역사여행도 각 시기의 유적지를 찾아 공부하기에 영조 정조 시기는 수원화성을 찾게 됩니다. 수원화성은 이름대로 수원에 있습니다. 지금의 수원원은 정조 임금때 계획적으로 세워진 신도시입니다. 정조임금 이전 시기 원래의 수원은 지금의 화성시이며 정조가 한양 외곽에 있던 아버지의 무덤을 원래의 수원으로 옮겨오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으로 뒤바뀐 곳이 지금의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무예 시범.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차기 왕권이 예약된 세자, 그의 아들인 정조, 세자의 아버지이자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 등의 가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출발합니다.

영조는 마흔이 넘어 어렵게 얻은 세자를 뒤주 속에 갇혀 죽게 합니다. 기록으로 뒤주에 갇혀 죽은 세자를 정신병자로 몰기도 하지만, 정권싸움 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선은 신권과 왕권의 대결과 조화로 유지된 왕국입니다. 왕은 때론 신하들의 파벌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신하들 또한 왕을 이용해 반대파를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앞대의 경종을 지지하는 파들과 영조를 지지하는 파, 영조 다음에 왕권을 거머쥘 세자를 지지하는 파들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희생의 이유를 찾기도 하지요.

정조는 열한살 때 스물여덟인 아버지를 잃었고, 스물다섯이 되어 조선 22대 왕에 오르고, 아

버지의 무덤을 격상하고 다시 명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아들인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 합니다. 동시에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한양이 아닌 새로운 곳에 자신이 직접 기른 젊은 신하 정약용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고, 좌의정이 공사 총책임자가 되어 튼튼한 성을 건설합니다. 10년의 계획은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되며 이성이 곧 수원화성입니다. 공기의 단축은 정약용이 고안한 다양한 장비들로 한 몫을 했고, 의무동원인 관례를 깨고 인부들에게 품삯을 챙겨주는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도 삼습니다만 무엇보다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던 왕의 힘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원화성을 가면 먼저 화성행궁을 찾습니다. 행궁은 옮겨온 궁궐로 왕이 한양 궁성을 떠나 성묘나 휴양 또는 피난시 머물기 위한 곳입니다. 화

성행궁은 화성 안에 있는 임금의 위한 임시궁궐이었고 여기에서 스물여덟에 홀로 되어 환갑을 맞은 왕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한양 아닌 곳에서 벌어진 왕가의 축하행사, 회갑 잔치를 위한 대규모 이동대열은 지금도 화성행차란 이름으로 수원화성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펼쳐지고, 행궁 봉수대에서 차려진 회갑잔치상과 축하 공연 또한 재현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당시 모습 그대로요.

조선은 기록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주요한 행사는 행사보고서인 의궤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화성과 관련된 의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의 행차와 회갑 잔치를 정리한 ‘원행 요정리의궤’와 화성 건설의 전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가 전합니다.



장안문은 한양의 남대문보다 더 큰 규모이며 정조가 황금군복을 입고 자신감을 보이며 들어섰던 문이다.

수원화성은 1997년 등록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심사때 화성은 현대에 재축조된 시설물이기에 세계유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다. 불가 판정을 뒤엎는데 사용

된 근거가 의궤입니다. 성을 쌓는 동안의 계획과 비용, 인부들의 작업일수와 품삯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때 파괴되어 복원된 시설임에도 200년 전 모습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은 성곽 둘레 길이만도 5.6km입니다. 전체코스를 돌기 어렵다면 화성 전체가 보이는 서장대에 올라 보고 시계방향 길따라 장안문까지 걷고 내려와 장안문을 통과해 보길 관합니다. 장안문은 한양의 남대문보다 더 큰 규모이며 정조가 황금군복을 입고 자신감을 보이며 들어섰던 문입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에서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행궁 앞에서 펼쳐지는 무예 24기 시범공연입니다.

정조는 열한살 때 아버지를 잃고, 영조의 명으로 양아버지의 아들로 울려지며 친아버지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기억이 잊혀질리아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원인을 밝히고 그 무리들에게 복수를 행하리라 인간적 감정 또한 있었겠지요.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복수가 아닌 힘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문(文)으로는 규장각을 만들어 정약용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직접 육성하였고, 무(武)로는 장용영을 만들어 친위 호위부사들을 양성합니다. 그 장용영 병사들의 무예가 바로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시범공연입니다.

여행길에서 먹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겠지요. 수원화성은 뭐가 유명해요? 아이들도 이궁동성으로 ‘갈비요’라고 말합니다. “그래 수원 왕갈비.”

그런데 왜 수원에선 갈비가 유명할까? 그건 현장에서 해야겠지요. 마침 이번 주에 수원화성 코스가 잡혔네요.

/체험학습동행 (historytour.co.kr) 대표